

본당 소식

♣ Buon Natale~!!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화와 새로움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미사 시간 안내

- 12월 31일 송년 미사 : 19시

♣ 2026년 달력 나눠드립니다.

- 로마 한인신학원에서 주문한 내년도 달력을 31일 **송년미사** 때 나눠드립니다
(각 가정당 1부)

♣ 회의 / 모임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79.78€ • 교무금 200.00€

전례 성가

입당 : 98 (이사야 말씀하신)

봉헌 : 103 (오늘 아기 예수)

109 (귀여운 아기들)

성체 : 110 (경사롭다)

100 (동방의 별)

파견 : 484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전례 봉사

이번 미사(12월 25일)	다음 주일(12월 28일)
1독서 : 안효빈 요셉	1독서 : 이수혁 시몬
2독서 : 안소현 아네스	2독서 : 진하림 글라라
복 사: 강윤이 스텔라 / 문수빈 미카엘라	복 사: 문수빈 미카엘라 / 정아인 레나
안테오 마태오 / 안테리 소화데레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총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12월 25일

(백) 주님 성탄 대축일 - 낮 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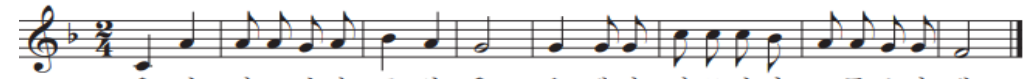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저희를 하느님의 모습으로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우 리 하느님의 구 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보았 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1독서 (이사야서 52,7-10)

7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8 들어 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9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10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시니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제2독서 (히브리서 1,1-6)

1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3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4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5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6 또 만아드님을 저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음 (요한 1,1-5.9-14)

1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2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9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12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13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샘이신 주님, 구원의 길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교회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며 세상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이끌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겨레를 굽어살피시어, 세계 정치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아가게 하소서.

3. 새 영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세례성사로 주님 안에서 새로 난 영세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가게 하소서.

4.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행복이신 주님, 저희 본당의 단체들을 굽어보시어,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체험하며 새 삶의 의미를 깨닫고, 모든 이가 화목하게 활동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 태어나신 구세주께서 저희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저희가 불사불멸의 은혜도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